

“병원 내 의료 감염병 막아라” 서울시, 관리·예방사업 착수

병원감염 ‘CRE’ 보고 매년 증가
총 1.2만건 보고... 예산 3억 투입
시민 교육 등 4대 실천과제 추진

서울시가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예방 사업에 착수한다. 인구 고령화와 침습적 기술, 의료기구 사용 등으로 의료 관련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의료 관련 감염이란 병원 내 입원 진료에서 발생하는 감염뿐 아니라 외래 진료나 투석, 장기요양시설과 관계 있는 감염을 일컫는 말로 ‘병원 감염’으로도 알려져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중 하나인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CRE 보고 건수는 2017년 1776건, 2018년 3704건, 2019년 47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수감사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지 총 1만1959건이 보고됐다.

이에 시는 올해 2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의료 관련 감염 대응 역량 강화 ▲효율적인 감시 체계 운영 ▲대시민 및 의료기관 교육, 훈련, 홍보 ▲유관기관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4대 실천과제로 삼았다.

우선 시는 권역별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기관의 예방 관리 역량을 높인다. 권역 중심병원이 관내 참여병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심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유행 대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아울러 시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표본감시 기관에서 매주 실시한 항생제 내성검사 결과와 다제내성균 신고건 보고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병 분리율과 내성율, 유행 추이를 파악한다. 내성균의 종류와 감염 건수를 조사하고 환자별 임상 특성을 분석, 예방 관리를 위한 효

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보건소와 시민, 의료기관내원객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한다.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과 권역 중심병원의 내부 전문가를 활용해 최근 급증하는 CRE 관련 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이해 및 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시와 자치구 전광판, 홈페이지에 표출한다.

한편 시는 중소·요양병원에서 CRE 등 다제내성균의 지속적인 확산과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도 취약한 실정이나 감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로부터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한강난지캠핑장 조감도.

/서울시

난지캠핑장에 실개천 흐른다 서울시, 12년만에 ‘리모델링’

캠핑면수 172개→124개로 줄여
바비큐존 등 갖춰 내년 4월 개장

서울시민의 가까운 캠핑 공간으로 사랑받아왔지만 낡은 시설과 비좁은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던 한강난지캠핑장이 12년 만에 싹바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만7000㎡를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9일 밝혔다. 재개장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핵심 목표는 ▲쾌적한 공간 조성 ▲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다채로운 즐길거리 ▲풍부한 녹지 확보다.

밀집도를 낮춰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캠핑면수를 기존의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여 한 면당 면적을 38%가량 넓힌다.

26개 화덕을 갖춘 ‘바비큐존’도 생긴다. 시는 바비큐존이 분리돼 고기 굽는 냄새가 줄고 캠핑장 내 혼잡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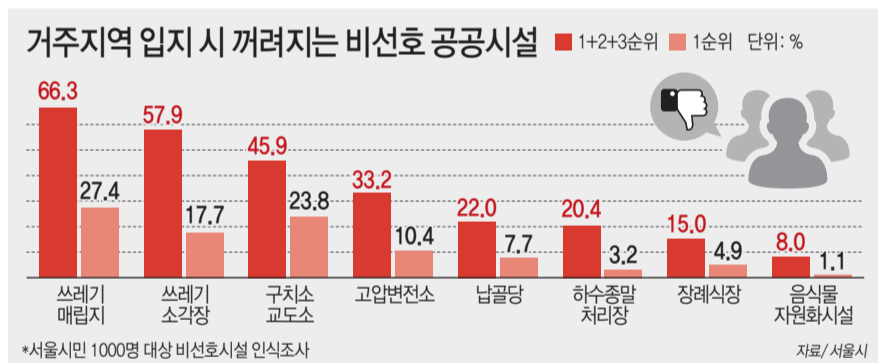
캠핑문화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 도구가 구비돼 있어 일일이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5면)이 신설된다. 또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과 잔디밭에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프리캠핑존’(36면)으로 구역이 나뉜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만7987그루의 나무를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김현정 기자

거주지 비선호시설 1위 ‘쓰레기 매립지’ 2위 ‘소각장’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조사
응답자 절반 임대주택 ‘무조건 수용’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시설로 가장 꺼리는 대상은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9~15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66.3%)였다.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가 뒤를 이었다.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태도를 ‘절대 반대’ ‘조건부 수용’ ‘무조건 수용’ 가운데 고르게 한 항목에서도 10개 시설 가운데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

물처리시설’이 가장 큰 비율로 ‘절대 반대’(59.3%)를 받았다.

반대로 ‘청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였다.

공공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7점 만점에 평균점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 ‘쓰레기 적환장·소각

장과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인식됐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사시설(장례식장·납골당)’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6.11점)과 하수처리시설(5.44점)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기관표창·인센티브 등 확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는 파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자 위축된 민간 소비·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일반분야 재정집행 124.6%, 소비·투자분야는 108.9%(1분기)와 140.3%(2분기)를 기

록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재정집행의 구체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용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예산 비중이 큰 각종 SOC사업의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 재정집행에 전력투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파주=안성기 기자 ask9990@

시민 64%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써야”

시민 2000명 대상 여론조사

박원순 시장이 들고나온 ‘공공기여금 사용처의 광역화’에 서울시민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9일 공개했다.

공공기여금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받아 가는 제도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에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3%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1.0%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응답자 326명만 놓고 보면 두 대담 비율이 47.4%로 똑같이 나왔고 ‘잘 모름·무응답’은 5.2%였다. /김현정 기자

도로 포트홀 사전차단 서울시, 콘크리트 포장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을 막기 위해 올해 8곳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0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범 설치했는데 이후 10년간 포트홀이 한 건도 없었다.

올해는 경인로 1곳, 공항대로 2곳, 송파대로 5곳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포트홀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금)
음력 : 5월 20일

수도권 날씨
28 ~ 23°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21/27
- 동두천 21/28
- 백령도 20/26
- 파주 21/27
- 가평 21/27
- 서울 23/28
- 인천 23/28
- 양평 22/28
- 수원 24/27
- 용인 24/27
- 평택 22/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